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代拂, 小佛 佛壇,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재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56

◇따로 법회를 갖거나 합창단을 꾸려 음성공양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치마 불교'라 불리는 불교계에 변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 사진은 수원 포교당 사자후 아버지 합창단이 연습하는 모습.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시부터 열리는 서울 광림사 아버지 법회는 부인들과 자녀들도 동참해 불교공부에 매진한다.

"신행활동 이젠 아버지들이 앞장서야 할때"

광림사 아버지 법회 김영일 회장

"처음에는 오고 싶어도 법회에 못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평일 낮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았지요. 그래도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들이 앞장을 서 보자는 취지에서 모임이 출발했습니다."

광림사 아버지 법회 김영일 회장은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절에서 남자들이 신행에 앞장섰다고 들었다"며 "아버지 법회를 키워 아버지들이 식구들을 법회로 이끌

불법 공부하며 '좋은 아버지' 다짐

수 있는, 가족 법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0여 년 전부터 장애인 차량 지원 봉사를 해 왔지만 아버지 법회를 계기로 일어난 변화도 크다. "아버지 법회에서 법문 듣고 불교공부하면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아버지가 되어 보자고 서로 다짐하고 있습니다"는 김 씨는 "무엇보다 법회에서 다른 아버지들과 자녀 교육, 직장 스트레스 등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갈 수 있는 마음을 나누게 되어 법회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고 강조했다.

◇수원포교당 사자후 아버지합창단이 1월 19일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에서 열린 성도절 맞이 '제2회 불자들의 작은 음악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최근 '보살 불교' '치마 불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사회를 결성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경쟁만을 부추기는 사회에서는 '명예 퇴직'이다, '감원'이다 위기의식만 쌓여가고, 가정에서조차 권위가 흔들리면서 아버지들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기만 했었다.

이러한 때 아버지들이 중심이 돼 '아버지 법회'와 '아버지 합창단'을 꾸려 부처님법을 배우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찾자는 모임이 속속 결성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모임은 서울 광림사(02-2202-5831) '아버지 법회'와 수원포교당(031-255-2692) 아버지 합창단 '사자후'.

사자후 남성합창단 김대성 총무

수원포교당 사자후 남성합창단 총무를 맡고 있는 김대성 씨는 합창단 결성의 일등 공로자는 "주지 스님"이라고 말했다.

남성합창단은 "사중(寺中)에서 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얼마 전까지 회장을 맡은 서정탁 씨는 수원 난파합창단에서 30년 활동한 김대성 씨에게

실력쌓아 교도소등 위문

도움을 요청했고, 김 씨는 산파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김 씨는 "간혹 아버지 합창단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래 못가 문닫는 경우가 많았다. 신도회나 거사회도 비슷한데, 신심도 신심이지만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중 스님들이 없다면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열심히 연습해 실력을 쌓아 가는 과정이라 사실 합창단이라고 하기에도 쑥스럽다"는 김 씨는 "앞으로 실력이 쌓이면 교도소 위문 공연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도회·법회·음성공양 적극 참여

한마음선원 등 남성합창단 맹활약

지난 12일 오후 8시 서울 송파구 석촌동 공동빌딩 6층 광림사(주지 해성) 법당. 매월 둘째 화요일, 아버지 법회가 있는 날이다.

아직은 불교계에서 약간 낯선 아버지 법회는 지난 해 12월 시작됐다. 1993년 결성된, 개인 택시를 모는 불자들의 장애인 지원 봉사단체 법륜회(회장 윤승봉) 회원 10여 명이 "봉사 활동뿐 아니라 불교 공부도 제대로 해 보자"고 뜻을 모았다.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자식들 키우는 고민을 아버지들이 함께 나누자는 의견도 보태졌다.

"사찰법회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전부 여자들이라 쑥스러워 못 가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았다." 아버지 법회 김영일 회장의 말이다.

그러나 아버지 법회는 석달이 못돼 가족이 모이는 가족 법회로 확대되고 있다. 첫 두 달은 아버지들만이 참석했지만 지난달부터는 부인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해 같이 공부를 하는 부부 불자들이 월등히 많아진 것이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도 눈에 띈다. 윤승봉 법륜회장은 "부부가 함께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도 듣고 불교 공부도 하다 보니 가정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아버지 법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지도 법사 송위지(한국외국어대) 교수다. 송 교수는 불교 기초 교리 강의뿐 아니라 자녀들 교육이나 가정 문제 등의 상담도 해주고 있다. 김영일 회장은 "내 자식이니까 하는 욕심이 앞섰는데, 아이들을 훨씬 더 이해하게 됐다. 부처님 말씀을 잣대로 하니 사소한 갈등도 원만하게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상담료는 따로 없다. 보시함에 각자 알아서 넣으면 된다. 장애인 후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아버지 법회는 아직은 시작 단계. 조계종 중앙신도회에 따르면, 전체 사찰중 30~40%에 신도회가 결성돼 있고, 거사회가 결성돼 있는 사찰은 지역적으로 손꼽을 정도다.

"지금까지 보살들이 한국 불교를 위해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는 아버지들의 단단한 발원은 법회 참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어머니들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돼 온 음성 공양에서도 아버지들의 열의는 뜨겁다. 서울 조계사, 불광사, 강남포교원, 능인선원 등을 중심으로 혼성 합창단이 활동 중이고, 수원 포교당,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등은 아예 남성 합창단을 꾸렸다.

"왜 노래만 하면 입이 부자연스러워지나요? 그러니까 억지 소리가 나잖아요."

"거사님들 목소리 큰지 다 아니까, 절대 크게 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13일 저녁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용주사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불교문화원 2층 관음전. 수원포교당 사자후 남성합창단(회장 김용가) 단원들이 지휘자로부터 발성이 안 된다고 연신 야단을 맞고 있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줄이야 알았지, 복식호흡이니 이런 걸 해 봤어야죠. 그래도 노래를 부르고 나면 환희심이 생깁니다." 권중서(경기남부지역 포교사 연합회 사무국장) 씨의 말처럼 지난 해 6월 결성된 아버지 합창단 '사자후'는 순수 아마추어들의 모임이지만 실력이 상당하다. 지난 해 8월 수원포교당 가릉빈가 어머니합창단 창립 15주년 기념공연에 찬조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제1회 경기도 남성합창제(지난 해 11월)에 초청됐고 경기도 어머니합창제(지난 해 12월) 때도 무대에 올랐다. 올 1월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 성도절 기념음악회와 3월 1일 경기불교문화원 점안식 때도 음성공양을 했다.

김대성 총무는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는 일이라 늘 설레고 보람이 크다. 음성공양이 작은 주춧돌이 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회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자후 합창단은 "거사들이 사중(寺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13명에서 시작해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40~60대가 함께 모인 회원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합창단 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한 서정탁 전임 회장은 98년 포교사 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던 경력의 소유자. 전직 성우 출신이 있는가 하면 김대성 씨는 수원 난타합창단에서 30년 동안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 아버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제 시작이지만, 활동하면 할수록 우리가 절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글=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ogo@buddhapia.com

스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스님은 소득이 없어 카드 심사에서 번번이 제외 되신다고요?
부다피아 하나 카드는 스님께 우선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동국대 병원 의료비 5~20% 할인!!

조계종 스님은 물론 다른 종단 스님이라도 부다피아 하나카드를 소지하신 분이면
누구나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해당됩니다.)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